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0
Oct. 2022
Vol.10 No.10

통권 98호

- 사무장로 취임 감사예배
- 제24회 주안예만남
- 교육부 할렐루야나잇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 주일 점심식사 재개

COVID 19으로 인해 2년 이상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가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교제를 더 그리워했던 교우들은 오랜만에 친교실의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교제를 이어갔다.

첫 번째로 점심 식사를 섬기기로 나선 목장은 영커플 목장이었는데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연령층들이라서 점심 봉사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도 늘

영커플 · 드림목장 ‘사랑의 밥상’



교회와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번 만큼은 맨 먼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모여서 멋진 스타트를 선보였다고 한다.

가장 젊은 목장에 이어서 23일에는 두 번째 식사 봉사로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속하신 드림2목장(목자 이규환 장로, 유연화 권사) 에서 섬기셨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타이틀로 젊은이 못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 내시며 교회의 가장 어르신으로서의 충분한 분을 보여 주셨다. <관계기사 9면>

| 임용자 기자 |

주안에 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희생 앞장

■ 사무장으로 취임

지난 9월 공동의회를 통해 협동장로에서 사무장로로 피택된 김영기 배석원 배진호 이인범 장로의 사무장로 취임예배가 10월 21일 저녁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이미 과거에 안수를 받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던 네 분은 그동안 주안에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생활과 맡은 사역을 통해 교우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왔다.

각자의 신앙 간증이 담긴 서약문 낭독 시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힘을 다해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장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소속 노회장과 김정도 목사, 제리 하먼 목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에 이어, 이인범 장로님의 대표 답사가 있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장로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다.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헬라 원어(프로이스테미)의 의미처럼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지식을 배

우고 연마해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조용대 기자 |

‘반갑다, 친구야’ 2년 반만의 개학 기쁨 넘쳐...

■ 주안에라이프 개학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코로나로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온 주안에라이프(국장 공태웅 피택장로) 개학 풍경... 학생들, 강사들 표정엔 반가움과 기쁨이 솟아났다. 비록 예년과는 달리 짧은 7주간의 가을 학기지만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소중한 만남이기에 감사가 더했다.

개강예배 찬송과 기도에도 최혁 목사님은 개강 설교를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 설명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강사들 소개가 있던 후 90여 명의 학생들은 각자 등록한 클래스를 찾아가 첫 수업에 참가했다. 예년처럼 20여 개의 다양한 취미반과 건강운동 프로그램이 오픈 돼 각자 1, 2교시 2개 클래스를 선택했다.

한편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아침 간식과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대장금’ 정인자 권사와 부엌 봉사팀이 새벽부터 나와 수고했다. 12시 수업이 끝나고 속이 출출한 학생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장로님들의 음식 서빙을 받아 가며 뜻깊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새가족 22명 ‘말씀의 은혜에 빠져...’ 화기애애



■ 제24회 주안에만남

지난 10월 2일 주일예배 후 주안에교회 101호실에서 제24회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22명의 새가족들은 촛불향과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갈대와 호박으로 데코를 한 만남의 장소로 모여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을 하였다. 박찬경 전도사의 색소폰 연주로 시작된 주안에만남은 한국에서 온 유명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였다. 전화로 녹음하느라 바쁘고 양끝을 외치는 모습들이 영락없는 소년, 소녀 같은 가운데에서도 미니 천국에 온 것 같다고 감동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맛있는 디너가 끝난 후 최혁 담임목사는 주안에교회 소개와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었다. 현대에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많은 교회들이 있고 산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되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다. 새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값을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봉사해야 올바른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였다.

어느덧 자기 소개시간이 되었다. 현덕과 현혜진 부부는 미해군 출신으로서 교회 근처로 이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장병선, 장혜진 부부는 사돈이 주안에교회를 다녀서 몇 번 주안에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송태훈, 송재인 성도 부부는 MP 교회를 다니다가 Fullerton 교회로 따라간 후, 이번에는 더 먼 벨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며 교회가 멀긴 하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너무나 좋아하는 교회라서 멀지만 계속 다니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엄태수, 엄세순 부부는 친구따라 주안에늘리우에 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폭 빠져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여 바로 등록하고 주안에교회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김충성, 이진희 부부는 미국에 온 지 3개월인데 교회를 찾기에 노력하다가 주안에교회를 방문 첫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평평 울고는 그날 바로 등록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신은지 성도는 교회 웹사이트로 이것저것을 검토한 후, 청년부가 마음에 들어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하였단다.

정현철, 브렌다 정 부부는 10년 이상 섬기던 교회가 코비드 때에 없어진 관계로 집에서 편히 쉬다가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믿음 생활은 용납이 안된다고 결정하여 등록을 했다고 한다.

폴 안, 클레어 안 성도는 서투른 한국말로 부모님(안철 장로)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하는 바람에 오게 되었다고 하여, 잘 결정하였다고 박수를 보내주었다.

새가족이 된 22분께 목사님께서서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부탁하였다. | 임용자 기자 |

'그래! 바로 이 교회야!'

주안예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세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배 중 찬양에 임하는 성도님들의 자세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깊이에 놀랐으며, 마지막 1시간이 넘는 말씀에도 흐트러짐 없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향한 열망에 너무 놀랐습니다. 주안예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저는 다른 교회에서 경험치 못했던 은혜와 예배 중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받았고, '그래!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마다 마음의 감동은 더해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찾으며 기도했던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성재영 전도사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분의 권유로 새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 동안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셨지만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역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그 길이 두 번 무산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탓하며 결국 하나님은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집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편해질 무렵 이제는 결단하고 교회를 찾아보자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우연히 발걸음 하게 되었던 주안예교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갔고 말씀 묵상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역의 길을 떠들리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고, 전 지금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주안예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한 찬양의 도구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사역 신념'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과 서약을 한 후 지난 30여 년을 중고등부, 대학부, EM 사역을 통하여 이민 한인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 기도, 그리고 봉사로 훈련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모습과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전 시작한 안식년이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다음 사역에 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안예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EM 사역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우리 EM 성도들을 사랑하고 ICY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과 협력하여 주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크고자 하던 제자들에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사역의 신념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크리스 리 목사

'들꽃처럼 아름다운 그 아이'

오래전에 인상 깊게 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뭄에 땅이 갈라졌고 뾰족한 돌들만 있는 어느 거친 들판에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활짝 핀 그 꽃은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소년원에서 가르친 지 6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친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당히 애를 먹을텐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예상했던 대로 어느 때는 상상 이상으로 험악한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내가 사는 집으로 초대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죄악에 눈을 떴고 범죄행위가 몸에 깊숙이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두 아버지가 없거나, 감옥에 있거나, 또는 있어도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어서 노력하는 걸 포기하고 석방되면 곧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올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친 아이들 중 아주 드물게 바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소년원에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모범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도 없었지만 자기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친 들판으로 돌아갔지만 그 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문인권 목사

‘헬로윈은 해로워!’ 동심 속에 예수님 사랑을



■ 할렐루야 나잇

ICY, IC KIDZ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할렐루야 나잇'을 하기 위해 10월 31일 저녁 6시 교회를 찾았다.

이날 교회를 찾은 부모와 아이들, EM 청년들까지 100명 남짓 되었고, 손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들도 발길을 하셨다.

ICY PSG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저녁식사 후,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한 예배는 은혜로웠다. 예배 후

Potato Sack Race, Bow and Arrow, Genga, Ring Toss, Air 하키, 솜사탕 만들기, 농구게임, 볼링, 페이스페인팅, 사진찍기 등 많은 코너들을 돌며 아이들의 손에는 사탕과 과자가 쌓여져 갔다. 8시, 아쉽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 부모들과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아 보이지만,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믿음있는 주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한글의 날

전통놀이·떡 만들기 통해 한국문화 체험학습

10월 9일 주일 오후, 와~야~깔깔 깔 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에 이끌려 브니엘 카페 옆 패티오에 들어가자 IC Now와 IC Power의 키즈 아이들이 연합예배 후에 '한글의 날' 이벤트로 모여 다양한 놀이들을 해보느라 눈들이 반짝인다. 팬데믹 이후 모처럼의 행사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제기차기, 팽이 색칠하기, 딱지치기, 붓글씨 써보기, 연 만들어 날려보기, 비석치기, 투호 던지기, 가래떡으로 절편 만들기 등 한국적인 놀이를 즐기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이성은 기자 |



■ 새가족 소개

"주일이 기다려져요,
말씀이 기다려져요"



미국 이주를 준비하며 처음부터 계획했던 곳이 아닌 발렌시아로 오게 되면서 저희의 미국 생활은 걱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한 그 주 주일부터 앞으로 다니게 될 교회는 어떨지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방문하게 된 주안예교회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와 말씀에 목말라 있던 모든 것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설교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고 미국 오기 전 기도 제목이었던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 정말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여운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제 삶 속에 적용되며 계속 생각이 나서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새가족부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몇 주 뒤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안에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서로 배려하며 유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분위기 그 중심에는 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올바른 평신도 교육으로 훌륭하게 양육되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인 미국 생활이지만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주안예교회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걱정을 기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 앞으로 주안예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 이진희 집사 |

■ 의료국/ 정명안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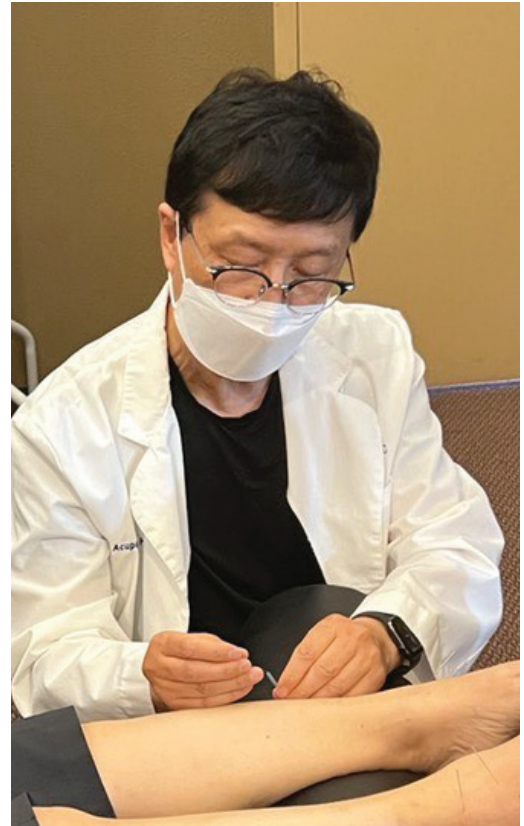
'성도들 통증 치료, 보람과 기쁨'

“하나님이 저에게 준 달란트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 10월 첫 주부터 다시 문을 연 의료국장 정명안 안수집사의 얼굴엔 팍방울이 맺혀 있지만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2년 반이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명안 집사님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2년간 근무했던 카이저병원 중환자실 RN을 은퇴하시고, 지금은 개업 한의사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민 후 미군에 입대해 의무병과에서 복무한 후, 다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질병의 원인 치료와 침술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한의학을 전공해 한의사로 봉사하는 등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매주일 13~14명의 성도들의 통증 치료를 하다보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료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현재 탑장인 정경남, 이규정 집사님이 진료를 돕고 있는데 울트라사운드를 맡아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경험이 없는 분들도 트레이닝 시켜드리니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 교우 소식

새 생명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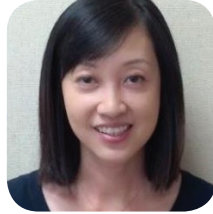


박익준/구윤희 집사 아들 출산
코람데오 청년부와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는 박익준/구윤희 집사가 첫 아들, 지운이를 지난 10월 14일 건강하게 출산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지운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첫 자녀를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지운이가 이를 뜻대로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온유한 자로 자라길 기도한다.

■ 주안애살 1권 소감

어려운 상황, 잘못된 판단 인식

주안애살 1권 책표지에 “풍요로운 삶”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지현 집사

주안애살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보여 주시고 회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불신앙을 다루시기 위해 일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제에서 나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먼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문제에 빼앗겨 염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좌절하고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나의 잘못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배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매일 육체를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매일 사위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 Abundant Life Lessons

Speak Differently Each Time

This was my third time taking Abundant Life part 1. Every time I take it, I am just reminded of how good God is. Even though I'm learning about the same thing every time, these lessons speak to me differently every single time. I remember the last time I took abundant life the lesson that spoke to me most was the one about leaving my sins at the foot of the cross. During that time, I was really insecure about leading praise. I felt like I was not worthy because I sin so much during the week. So I wanted to quit many times, but that abundant life session renewed my heart for serving by teaching me what grace really meant.



Matthew Yang

This time, the lessons that really spoke to me were the ones about loving my neighbors. I've been having a tough time loving the people that God has placed around me. My heart was filled with anger and bitterness towards many people. Not because I thought I was better than them, but because I didn't try to see from their point of view. I would just shove all that anger down until it started affecting my heart for serving. Then God showed me through this lesson that I cannot love on my own. That I need the Holy Spirit to love as Jesus did. This past week I finally was able to forgive and let go of all the anger that was shoved in my heart.

I realized as I was writing this reflection that every time I went through Abundant Life, it has renewed my heart to serve in a different way. Whenever I felt like quitting, God reminded me through these lessons that He chose to use me. What an honor and joy it is for God to use someone like me. I'm excited that I'll finally be able to continue to the next part of abundant life. I've never done part two and hopefully, I will be able to experience God just like how I did in every other section. Overall, Abundant Life has been great. The hardest part for me is writing these reflection papers, but without the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realize a lot of the lessons I've learned.

■ 교우 소식

새 출발 축복합니다~!

박민재 목사/박남진 사모 장녀 결혼
주안애교회의 목회부에서 사역을 돕고 계시는 박민재 목사님과 박남진 사모님의 가정에 축하드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월 29일 열바인에 위치한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에서 장녀인 박하은양이 Brian Hong 을 신랑으로 맞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두 사람이 꾸려갈 가정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그 에너지가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기를 응원한다.



■ IAM 합창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소중함

IAM 합창단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연습하는 것이 가능할까? 참석은 잘할까? 사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한 소견과는 달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협력함으로 은혜롭게 찬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IAM 합창단을 통하여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유업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다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IAM 합창단의 찬양이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부르신 곳에서 성실히 연습하고 인내해 주신 덕분에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합창단의 모습에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짧은 열정과 힘이 있을 때 기록하고 귀한 것에 그 힘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애슬리 집사(총무) |

‘감사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IAM (I AM MELODY) 합창단은 2021년 12월에 YOUTH 아이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후 1시간씩 아이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쉽지

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며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을 붙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10월 4째주(10/23) 처음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님께서 이루셨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형식적으로 IAM 을 통해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이제형 집사(지휘자) |

■ ICY 소식

즐거운 Lock-in,
학부모회 개편

11월 4~5일 있었던 ICY Lock-In 은 오랜만에 약 40여 명의 학생들과 리더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 침낭을 깔고 자는 시간을 가졌다.

닷지볼, 농구, 배구 등 운동과 함께 몇 가지 그룹 활동을 함께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함께 수고하신 전도사님들과 리더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녁,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신 PSG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있었던 PSG 학부모 회의를 통해 2023년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ICY 국장 강종규 안수집사, 부장 전혜숙 권사, 팀장 윤세희 피택권사, 고

등부 PSG 팀장 양윤석 피택안수집사, 중등부 PSG 팀장 강은숙 권사가 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류명수 피택권사 |

■ 영커플 교회식사 준비

예수님 본받아 섬김, 선물같은 행복감이...

10월 16일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아가페 영커플이 가장 먼저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늘 교회와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이번엔 영커플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약 한 달 전부터 메뉴를 선정하고 600인분의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커플 지체들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 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자리가 되길,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길 기도했다.

15일 토요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봉사국과 도움을 주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아기들이 있는 가정들도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나와 일손을 돕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식사 준비와 테이블 세팅, 각 목장별로 필요한 테이블 개수까지 점검한 뒤 1차 준비를 마쳤고, 16일 당일 오전 7시부터 남은 작업을 진행했다. 많은

영커플 지체들이 참여해 밥과 반찬, 미소수프, 그리고 과일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준비하였고, 배식팀, 서빙팀, 설거지팀, 등 일을 분업화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영커플이 식사를 담당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피곤한 내색 없이 웃으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고, 서로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손길들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게 식사하시며 담소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큰 선물을 받은 것 마냥 행복하고 가슴이



벽차 올랐다. 우리가 섬긴 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영커플이 되길 기도한다.

| 김윤영 기자 |

■ 영커플 Ladies' Day

예쁜 카페서 오붓한 시간 '인생선배 조언' 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마치고, 아가페 영커플 여성 멤버들은 들뜬 마음을 안고 엘에이 한인타운으로 향했다. 이유는 바로 영커플에서 처음으로 갖는 Ladies' Day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 부서에 있어도 친해지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 서로를 더 알고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모처럼 남편들과 아이들 없이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자유시간을 만끽했다. 서로의 현재 고민을 나누고 인생 선배인 목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며 결혼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다음 모임에는 모든 영커플 Ladies 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 목장소식

밸리17 목장 단풍구경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17목장(목자: 이복희 권사) 가족들은 비숍과 사브리나 레이크로 단풍 구경을 다녀왔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었던 하루였다고 하며 벌써 다음 행선지를 준비한다고 한다.



■ 선교지 소식/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

현지 주민들 의식 변화, 축구장 공사 자발적 동참

주안예교회 최혁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워나가는데 함께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 올립니다.

연약한 이방 여인의 작은 날갯짓의 영향으로 수동적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능동적으로 바뀌어 문제점을 돌출하려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 흐뭇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크지도 않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매마른 모래땅을 적셔가며 운동장 구석구석으로 찾아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보며 고단했던 하루의 일과를 되짚어 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건기 때를 지난 후의 빗소리에 안식을 가지며 4층으로 올라가 동네 사방을 둘러봅니다. 1차로 완료한 배수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빗물의 흐름을 보노라니 운동장을 지대가 조금 높은 옆 동네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차로 운동장까지 오는 긴 길이의 배수로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이번 우기철에 빗물의 흐름을 지켜보기로 한 결과, 물 흐름은 상당히 빨라져서 운동장 주변 주택가들의 침수를 막을 수 있었고 이면 골목길도 질척거리는 해도 사람들과 차량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효과가 있었습니다(예전 같으면 1층 침수는 물론 12월이 끝나가도록 벽돌 징검다리도 다녀야 했음).

우기철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림에도 여전히 사방에서 모여드는 빗물은 운동장을 꽉 채운 후에 내려가는 현상의 결과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운동장 면적을 당초 세운 규격을 2/3로 축소하고 대형 저수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여 지금은 저수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고무적인 사실은, 이전에는 모든 것을 제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의 방향 설



정을 해주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었다면 이제는 마을 주민 대표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후세대를 위한 축구장 조성에 자발적 참여로 4 part로 나눈 조직을 결성하고 1)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2) 공사 감독 및 구조 감독 3) 자금 동원 및 지역 발전 4) 감사 및 평가 등으로 각각 8명씩 선정을 해놓고, 저와 현지

인 협력자인 Oumar SY는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기로 정하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자랑스러웠고 현지인들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놀라운 인식 변화로 모든 것이 기대 이상으로 자리 잡아가던 중 10월 20일에 비보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주지인 UNIT 9 공동체 마을에 8년 전에 정착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특히 체류증 허가 서류도 만들어 주었던 축구아카데미 directeur 이자 사역 협력자였던 Oumar SY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협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점잖은 신사분으로 지난 9월 23일에 본격적인 축구장 조성을 앞두고 업무추진비와 관공비 명목으로 1백만 아프리카 프랑 (한화 약 2백만 원 상당)을 주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공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공금이 아니고 개인적 우정으로 주는 것이니 공동체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였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잘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현지인으로 총괄자가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운동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더욱 희망에 부풀 도전은 계속 파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중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광영, 이성은, 이에스터,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펜실베이니아 'Sight & Sound Theatres'



'크리스천 뮤지컬 · 실물 크기 성막이'

지난 10월 뉴욕과 볼티모어에 사는 자녀들을 방문하는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 지역을 여행하였다. 여기서 "Sight & Sound Theatres" 라는 크리스찬 뮤지컬 전문 공연 극장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물 크기로 재현한 성막, 그리고 전기와 현대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사람과 가족의 힘만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사는 아마쉬 마을(Amish Village)을 관광한 소감을 간략히 소개한다.

* Sight & Sound Theatres: 이 극장은 대개 한 가지 주제로 된 크리스찬 뮤지컬을 주 6회 매일 2회씩 1년간 공연하는데 2000석이나 되는 좌석이 거의 매회 매진된다고 한다. 미국의 모든 극장 중 3위 안에 드는 유명한 극장인데 특이한 것은 전면 100 Feet, 좌우 측면 각 50 Feet 정도의 3면이 무대인데 2시간 공연 중 에피소드에 따라 평면과 2층 누각 등 입체무대 시설물들이 자동으로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었다.

작년엔 구약 에스테르에 나오는 "Queen Esther (에스테르 왕비)"를 공연했고 올해는 "DAVID (다윗 왕)"이 공연중인데 내년엔 "MOSES (모세)"를 공연할 예정이라 한다. 작년 에스테르 왕비를 관람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올해 다윗 왕 뮤지컬을 보며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 또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며 나의 신앙에 큰 보탬이 되었다.

* 재현된 성막(Tabernacle Reproduction): 성막 뜰에서부터 성막 안의 여러 시설물과 집기들 그리고 지성소와 법궤 등 성막의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물 크기로 조성한 것이다. 실물들을 보며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난해하고 기억이 잘 안 났던 어려움이 해소되는 기쁨을 느꼈다. | 나형철 기자 |

■ LA카운티 박물관(LACMA) 한국근대미술전



'일제시대 평민들의 삶이 화폭 속에'

계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늘 다녀오는 곳이 있다. 오늘은 월서길에 자리하고 있는 LA박물관에 갔었다. 요즘은 박물관 보수공사로 인하여 두 동의 빌딩만을 오픈해 예전처럼 많은 그림을 감상할 수는 없지만 올 가을엔 한국 화가들의 특별전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조차도 만나기 힘든 작품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니..... 이 그림들은 근대미술에서 가장 복잡 다난했던 시기로서 어쩔 수 없이 근대화를 받아들여야 했던 슬픈 역사 속에서 탄생된 작품들이다.

한국의 마지막 왕조이자 단일 왕조로서 존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조선시대 (1392-1910) 와 현대 사이에 자리하며 일제 강점기 (1910-1945) 와 6.25전쟁까지 거치며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근대 화가들의 그림들이 아픔을 안은 채 고고한 모습으로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유화, 사진, 조각 등의 새로운 표현 수단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시기에 그려진 130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중 이십여 점의 그림은 대중에게 소개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었다. 그밖에 김응원 화백, 김은호 화백, 특히 배운성 화백의 "가족도" 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 가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가족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소산 박대성 작가는 5세 때부터 독학으로 배운 예술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수묵 대가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근처 6가 길에는 차를 세울 만한 장소가 참 많다. 온 가족이 오후 나절 박물관 나들이로 이 가을을 느껴 보려면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가 될 것 같다. | 임용자 기자 |

■ 교회 점심식사 준비



팬데믹으로 인해 한참 동안 교회 부엌도 닫혀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하며, 토요일 오전에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밸리 5목장(왼쪽), 밸리 19 & 20목장(오른쪽)

■ 음악 산책/ 볼쇼이극장 관람기

구한말 양반 눈에 비친 러시아 오페라

대한제국 선포 1년 전인 1896년, 고종의 명을 받은 사절단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을 출발한다. 사절단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국-일본-캐나다-미국-아일랜드-영국-네덜란드-독일-폴란드를 거쳐 10470 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하여 56일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에서는 오페라 <이반 수사닌>과 발레 <라 바야데르>가 공연되었다. 이 자리에는 각국의 귀빈들이 초청받았고, 조선의 사절단에서는 윤치호와 김득련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화려하고 웅장한 극장의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무대에 감탄했다.

역관으로 사절단에 동행했던 김득련은 귀국 후,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발행한 영자신문 <The Korean Repository>에 공연 관람 후기를 남겼다.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돌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모두 그를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군자 노릇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 보다.”

“별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가녀린 남자를 학대하다니 서양의 군자들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조선인 최초로 볼쇼이극장을 방문하여, 생애 처음으로 오페라와 발레를 관람하고 남긴 감상이다. 사람들 앞에서 인성을 높이지 않아야 하는 조선의 예법으로 보자면 오페라 가수의 힘찬 발성이 의아했을 것이고, 발레리나는 웃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학대받는 가엾은 여인이었다.

황제의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갔던 사절



단은 정작 대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관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자를 벗어야 했는데, 잡사라도 갖을 벗는 것은 조선의 예법에 어긋난다며 사절단의 수장인 민영환이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를 설득하지 못한 일행은 결국 밖에서 3시간 동안 대관식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사람은 자신의 지평대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기 마련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신앙의 기간과 경험이 쌓여 갈수록 하나님이란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내가 지킨 형식과 행한 의가 스스로의 자랑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땅의 것을 탐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며 영적 강건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해 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코람데오 청년부 솔뱅 여행

새벽기도 훈련, '방학' 즐거운 소풍

하며 교제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섬길 날들이 더욱 기대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 박수정 성도 |

#roadtrip! Coram Deo's day-long excursion to Solvang and Santa Barbara was just like your childhood family trips: bumpy roads, "dad" yelling at everyone to put on seatbelts, and off-key singing of brothers and sisters as the van rolls on. Who knew that life-sized chess could be so intense? Or that antique clocks could be so interesting? (and expensive; \$16k!? Who do you think I am, Elon Musk?) Countless memories were made, and will be forever cherished, from running around Solvang's landmarks, hurriedly taking selfies with the group, to delicious tacos as we watched Soo Park hit fly balls out of the park.

Coram Deo is my family in Christ, and I look forward to the next road trip we'll take together. 감사하다! | Paul Yang |

코람데오 현재 리더들과 차기 리더들이 함께 모여 6주간의 새벽기도 모임과 경건의 훈련을 수련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새벽기도 후에 훈련은 방학을 하고 솔뱅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솔뱅에서 scavenger hunt를 하며 그룹으로 함께 협동하여 팀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솔뱅에서 햇살 좋은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타바바라에서 바닷바람도 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